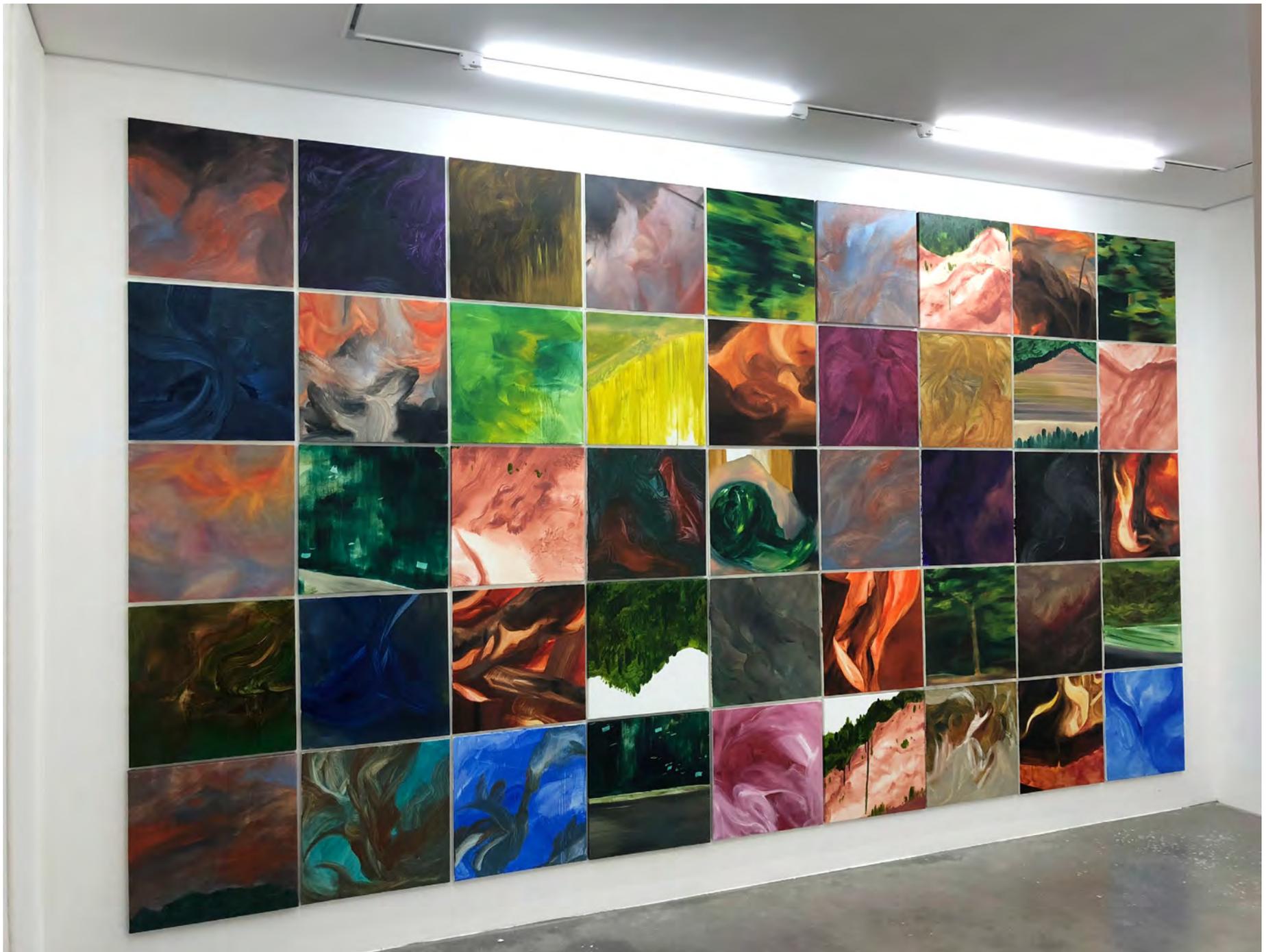


Autoplay 57 paint ink on glass, 280.2x297.0cm, 2018



Autoplay 56 oil on canvas, 112.1x162.2cm, 2018



Autoplay 1-45 oil on canvas, (each)50x50cm, 2018

“초속(超速)의 비행기를 생각해보자. 초속 사진기는 이 비행기를 부동의 모습으로 정착시킬 것이다. 등속운동을 하는 물체 상호 간에는 움직임은 없다. 순간을 관찰하면 운동은 존속하지 않는다.”
-최인훈의 <서유기>(1966) 중에서

2018년도에 개인전을 준비하며 내 그림의 시각적 도상에 지쳐갈 때쯤 잠시 환기를 위해 본가에 내려갔다. 부산한 서울과는 달리 고요한 전원 풍경 속에서 움직이는 대상에 눈길이 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벼의 움직임, 다 떨어진 낙엽이 바닥에 나뒹구는 순간, 모닥불과 함께 피워나가는 연기 등을 관찰했다. 풍경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늘 영상을 선호했다. 사진에선 포착 불가능한 움직임이 스마트폰 영상에는 손쉽게 담아진다. 영상 매체는 시간성을 갖고 작동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만한 이야기다. 그러나 영상 속 시퀀스는 하나의 기록일 뿐 내게 어떠한 긴장이 발생하는 촉매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내게 영상은 기록일 뿐 작업이 될 수는 없었다.

이 기록들을 작업실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 마치 영상 속 움직임들이 나에게 말을 거는 듯한 환상을 느꼈다. 영상 속 모닥불은 단지 모닥불의 이미지일 수는 없었다. 색을 달리하며 변화무쌍하게 끝없이 움직이는 가변적인 형상이었다. 이것을 사진도, 영상도 아닌 회화적 순간으로 기록한다면 어떨까. 사진의 순간은 운동이 존속되지 않지만, 회화의 순간은 존속이 가능해보였다. 회화는 또 하나의 ‘운동’이라는 요소를 교차시킬 수 있으니까. 그 요소는 작가의 몸짓이다.

우선 영상을 ‘재생 상태’에 두고 회화로 옮겨본다. 영상은 주로 대상을 원하는 타임라인만큼 촬영한 것들이다. 형상을 쫓는 작은 붓질과 움직임을 쫓는 큰 붓질 사이에 이미지는 공명한다. 나는 마치 장노출의 카메라로 작동한다. 주관적으로 엮어진 이미지는 영상의 재생과 일시정지 버튼 사이의 슬래쉬를 오가는 것도 같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때의 불을 떠올린다. 이 그림은 멈춰있는가? 움직이는가?



12FPS oil on canvas, (each)53.0x40.9cm, 2020



Oops! oil on canvas 112.1x145.5cm 2021

Pawing

oil on canvas
162.2x130.3cm
2021



Headbanger

oil on canvas
72.7x60.6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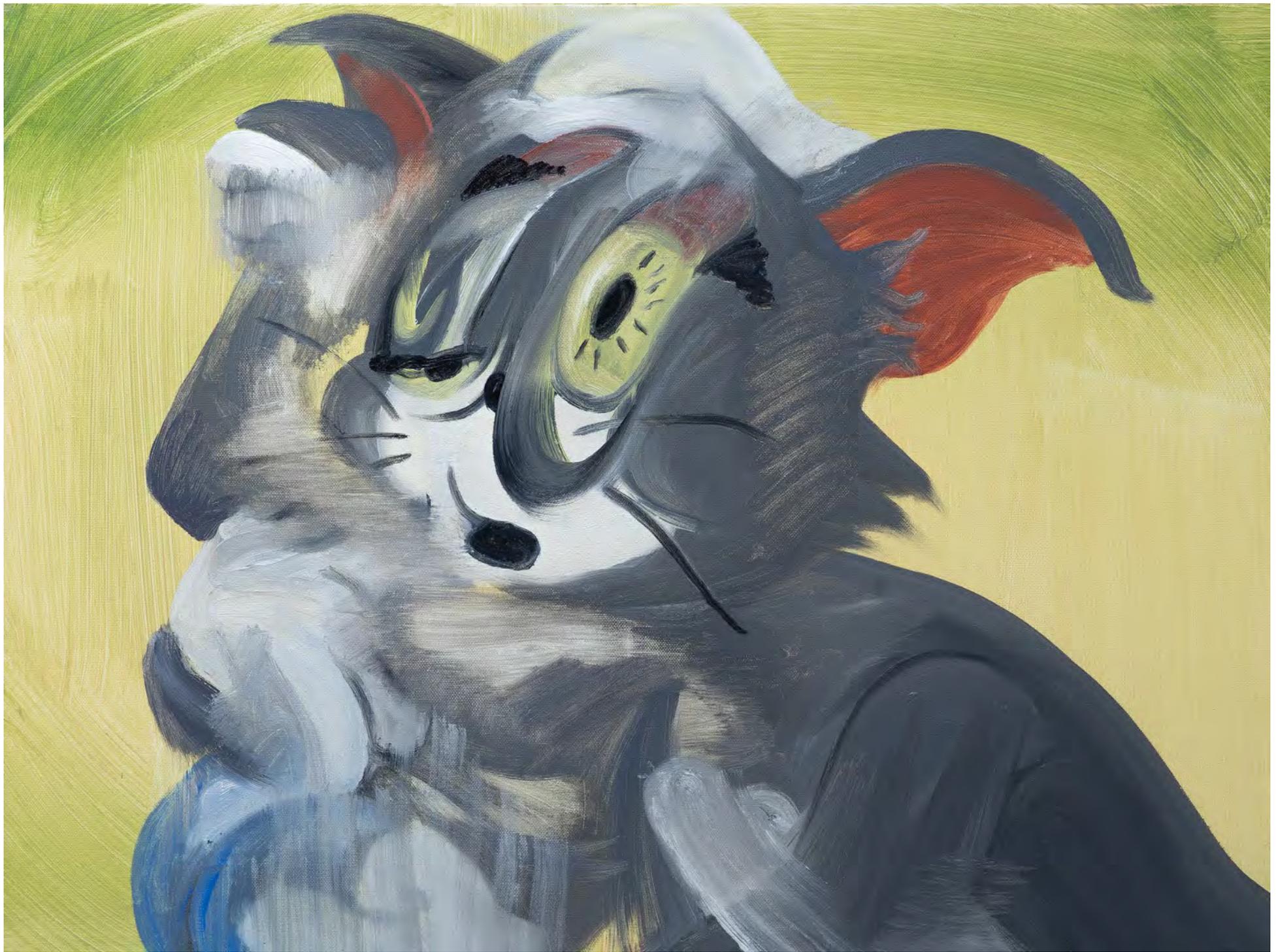
찰나의 반복을 꿰뚫어 친구 만들기

우리는 모든 것을 자꾸만 짧게 보려 한다. 유튜브에 자리 잡은 ‘Shorts’ 탭과 인스타그램의 ‘릴스’는 ‘탐색/검색’ 탭보다 앞서 자리를 대신했다. 무시간의 시대에서 어떤 것의 하이라이트만을, 짧게, 반복해서 본다는 것은 현시대에 무슨 의미를 가질까. 또 그러한 특성을 가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 GIF(움직이는 짤방)은 이러한 현상의 농축된 에센스 같은 것이라 본다. 움짤은 보통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장할 때 사용된다. 원본 영상의 창작자가 아닌 제삼자가 하이라이트라고 느끼는 순간을 따와 만든 이 파일은 피드를 유영하고 빛나며 때로는 있을 자리를 잃은 채 사라진다. 이 움짤들은 불연속적인 찰나로 구획되며 우연적인 순간의 왕복으로 공유된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세계를 사는 우리는 그저 찰나의 반복에 사는 것일까?

나는 이러한 GIF의 디지털 움직임에서 시지각적 운동성을 포착하고 회화적 움직임으로 변환한다. 움짤이여만 하는 이유는 원본의 서사가 지워진 장면이 나의 붓질과 만나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기에 적합하다. 내가 회화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들은 나에게 익숙하며 (신체적, 감정적) 해를 끼치지 않는 것들이다. 곁에 두고 볼 수 있어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들. 때로는 어린 시절의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보던 주말 디즈니 만화동산의 추억을 그리워 한다.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친구’와도 같았던 대상은 파스텔빛 구름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다. 이제는 모두가 알겠지만, 그 대상들은 허상이다. 마냥 행복했던 것만 같았던 어린 시절 또한 사실은 예쁜 포장지로 둘러 쌓인 혼란일 뿐이다. 나는 그 이상한 향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그 대상을 직시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도 내가 집중하는 것은 ‘대상이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이 대상이 가진 유구한 역사보다는 대상이 어떤 행위를 반복한다는 사실만이 나를 흥미롭게 만든다. 나는 매일 움직이는 것들을 보며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그리는 그림은 정지 상태로 보인다. 그 격차가 나를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

양면성을 가진 것들의 격차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자 한다. 움직이는 디지털 파일(GIF)과 고정된 회화, 어릴 적 이상하리만큼 고취된 가족성과 지금의 1인 가구시대, 늘 발랄할 것만 같은 캐릭터들과 그들이 주입시키는 가치관 등을 내 몸을 통해 화면으로 옮겨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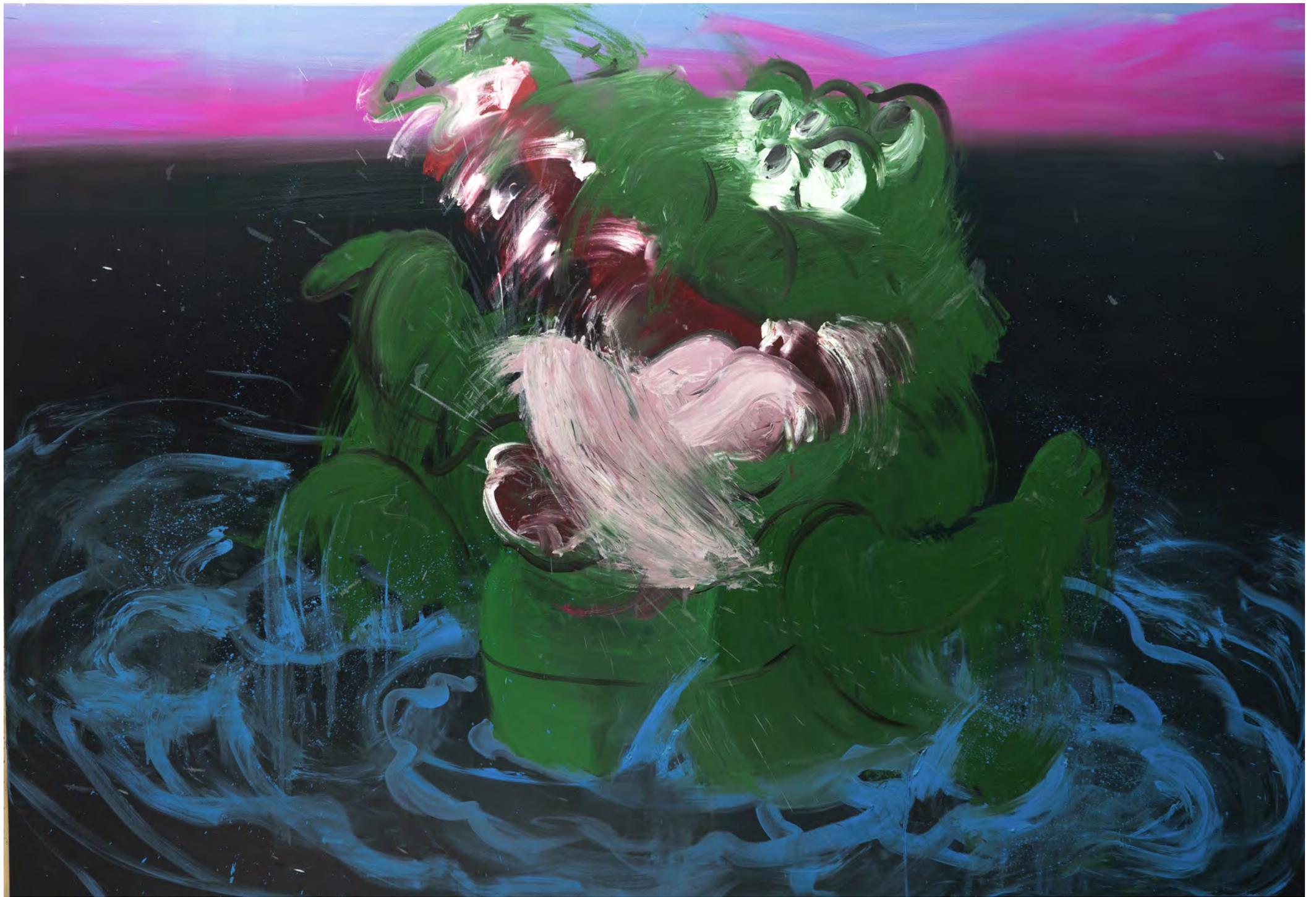
내 그림은 붙잡히지 않는 순간에 관한 기록이다. 나의 몸이라는 필터를 통과한 물감이 캔버스와 만나는 순간, 만질 수 없던 존재들은 마침내 현실 세계로 밀려온다. 이를 위해 나는 물감이 채 마르기 전에 그들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손과 붓으로 만져보다가 이내 오일바로 그들의 외각을 따라 선을 그려보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있던 자리를 캔버스 면이 보이게 지워내거나 만화적 선을 빌려오기도 한다. 다양한 재료와 회화적 장치의 사용은 캔버스 속에 또 다른 시간과 공간을 재창조한다. 이로써 짧은 동작을 반복하며 한평생을 살아가는 대상에게 머물 자리를 만들어준다.



zzz oil on canvas 45.5x60.6cm 2021



Shoooo! oil on canvas 112.1x145.5cm 2021



Splash oil on canvas 130.3x162.1cm 2021



Ding-dong conte, oil on linen 112.1x145.5cm 2021



Hissss conte, oil on cotton 40.9x53.0cm 2021

Slurp

oil on canvas
145.5x112.1cm
2021





Shaky Shaky 2 oil on canvas 53.0x72.7cm 2021



Shaky Shaky oil on canvas 53.0x72.7cm 2021



I'm on fire oil on canvas 45.5x60.0cm 2021

Good Morning

oil on cotton
112.1x145.5cm
2021



Boring

oil, conte on canvas
112.1x145.5cm
2021



You need a hug

oil on cotton
112.1x145.5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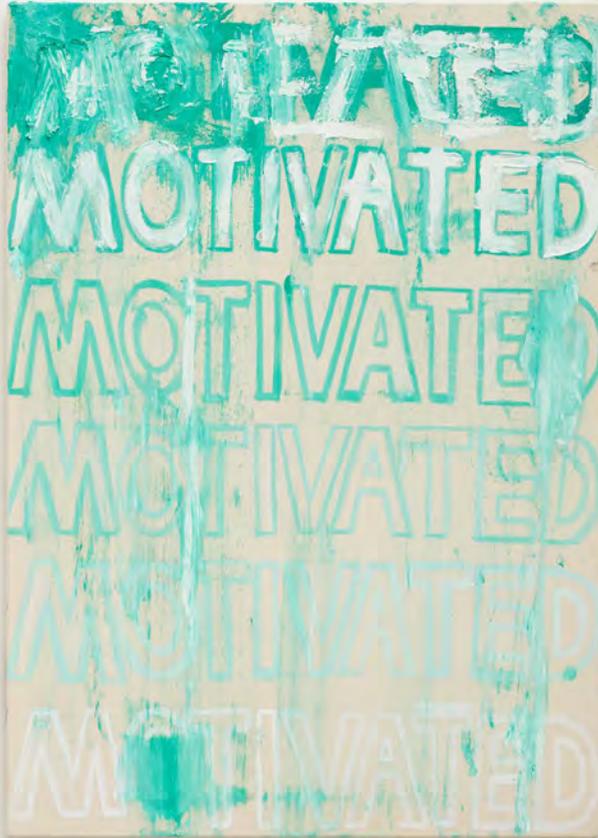


URTHEBEST

oil on cotton
90.9x65.1cm
2021

Motivated

oil on cotton
90.9x65.1cm
2021



TURN, SWITCH, JUMP!

2022.1.4-1.27
갤러리조선
Exhibition View



TURN.
SWITCH.
JUMP!
BY LEEHA



TURN, SWITCH, JUMP!

2022.1.4-1.27
갤러리조선
Exhibition View



TURN, SWITCH, JUMP!

2022.1.4-1.27
갤러리조선
Exhibition View



Chu-

oil, conte on canvas
162.0x189.5cm
2021



Yes, that smile

oil, conte on canvas
80.3x116.8cm
2021



ggggg..

oil, conte on canvas
80.3x116.8cm
2021



Ouch!

oil on cotton
91.0x116.8cm
2021



Rainbow Slide

acrylic, spray,
conte, oil on canvas
193.9x260.3cm
2022



She likes my SPARK!

acrylic, oil, conte
on canvas
112.1x145.5cm
2022



Walking Owl

Oil, conte on cotton
80.3x116.9cm
2022



이은 (b. 1995)

대한민국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

학력

202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석사 수료

2020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 학사 졸업

개인전

2022.01 TURN, SWITCH, JUMP!, 갤러리조선, 서울

2018.10 Autoplay, 어쩌다 갤러리2, 서울

단체전

2022.04 LOVE PUNCH, 아트스페이스 영, 서울

2021.11 That's What I Like,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서울

2021.11 SOLO SHOW :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부산

2021.01 너무 작은 심장, 교보문고 광화문점, 서울

2020.11 Human Touch,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서울

2020.04 발화시發話時, 공간:일리, 서울

2020.01 어쨌든 아주 배가 고팠던 모양이구나

이은정x황규민 2인전, Space 55, 서울

lleejj2532@gmail.com 010-6786-4206

<https://leeeun.myportfolio.com>

Instagram @leeeun_archive